

## 예기를 사용한 살인과 교·액살 살인 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손 현 서                      박 지 선<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살인 범죄에 사용된 흉기 유형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외상 형태, 범행수법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흉기 가운데 특히 국내 살인 범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칼 등의 예기를 사용한 살인 범죄에 주목하여, 이를 줄이나 끈, 맨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교·액살 살인 범죄와 비교하였다.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총 302건의 범행을 대상으로, 흉기 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점을 교차분석 및 t-검정을 통해 조사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는 교·액살 가해자보다 총 전과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폭행/상해 전과횟수가 더 많았다. 한편 교·액살 피해자는 예기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고, 미혼 여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더불어, 예기에 의한 살인 피해자의 외상은 대부분 몸통에 나타나고, 상처가 비교적 분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교·액살 피해자의 외상은 신체 한 군데에 단일 상흔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흉기에 따른 범행 수법의 차이와 관련하여, 교·액살 사건은 예기에 의한 살인사건보다 범행 중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의 피해자 제압 행동, 강간행위 및 귀중품 절도, 범행 후 시신 이동·유기 등 사건 조작·은폐 시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살인, 흉기 유형, 예기, 교살, 액살, 시신 유기

---

<sup>†</sup>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 02-2077-7832, E-mail : jsirispark@hotmail.com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화장실 내에서 23세 여성이 비면식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칼로 수차례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는 총 958건으로(대검찰청, 2016), 인구 10만 명당 1.9건의 살인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인구 10만 명당 2.8건이라는 높은 발생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온 수치이다(대검찰청, 2016). 그러나,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신문기사 검색(www.bigkinds.or.kr)결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키워드로 검색한 단일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사건 발생 후 1년 간 총 2,059건에 달하는 등(2016년 5월 17일-2017년 5월 16일), 살인 범죄는 그 심각성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범죄이다.

국내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특히 살인 및 성범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국내 살인에 대한 연구는 가해자-피해자 간의 관계(강은영, 박형민, 2008; 이윤, 2016),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서종한, 2010; 이현정, 박권수, 최상섭, 1999), 살인범의 범행 동기(고선영, 2011), 연쇄 살인(김경옥, 이수정, 2005; 이봉한, 2009), 여성 살인범(강은영 등, 2008; 백창현, 2007), 살인 사건의 미디어 보도(이재영, 유영재, 박보라, 2014)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살인 범죄에 사용된 흉기에 주목하여 흉기의 종류에 따른 살인 범죄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살인 범죄에서의 범행 도구 사용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칼로 약 64.9%의 범행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16). 이 외에 날카로운 예기라 할 수 있는 도끼와

낫 또한 각각 1.9%, 1%의 살인 범죄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대검찰청, 2016).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도구는 공구로, 총 6.3%의 범행에서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줄이나 끈(4.1%)을 사용한 경우가 세 번째로 많았고, 그 외에는 유리병(2.0%), 독극물(1.5%), 몽둥이(1.0%)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대검찰청, 2016).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살해하는데 사용한 수단이다. 만약 살인 범죄가 발생한 이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살인에 사용된 흉기 등의 도구는 현장에 남아있거나, 현장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은 외상 등의 특성을 통해 그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특성을 연구한다면 가해자의 특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등 살인 범죄 전반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외에서는 살인 범죄에 사용된 흉기가 칼이나 가위와 같은 예기인지, 몽둥이 등의 둔기인지, 줄이나 끈 등의 결박 도구인지, 혹은 가해자의 맨손인지 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살인의 고의성, 범행의 계획성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Ambade & Godbole, 2006; Fischer, Kleemann, & Tröger, 1994; Henderson, Morgan, Patel, & Tiplady,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살인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중심으로, 흉기의 유형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범행 수법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 살인 범죄 연구에 있어 그간 상당 부분 간과되어 왔던 흉기의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조사하여 살인 범행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살인 범죄 수사에 있어 범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특정하는 등,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있어서도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Häkkinen, 2005; Karlsson, 1998).

### 국내 살인 범죄의 통계적 특성

우선 국내 살인 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 범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성을 공식 통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대검찰청, 2016). 먼저 살인 가해자의 경우, 남성이 약 83%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 분포를 보면 41-50세 사이가 약 28%로 가장 많았으며, 51세-60세 사이가 약 2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즉, 41세 이상이 전체 살인 범죄자의 약 삼분의 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절반 이상(57.4%)이 전과가 있었고, 전과 9범 이상인 경우도 16.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살인 피해자는 남성(57.7%)이 여성(42.3%)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이긴 하나, 가해자의 성별 분포에 비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피해자의 연령층을 보면 41-50세 사이가 약 29%로 가장 많게 나타나는 등 41세 이상인 경우가 총 68.8%로 집계되어,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은 1일 이내가 68.8%로 약 삼분의 이를 차지하였다. 이후 2-3일 이내가 약 5%, 4-10일 이내가 약 7%, 11일-1개월 이내가 약 5%, 1개월 이상-1년 이내가 약 8%, 1년 초과가 약 6%였다. 한편, 살인 범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는 전체 사건의 약 29%로 나타났다.

### 예기에 의한 살인 범죄의 특성

국외에서는 흉기의 유형에 따른 살인 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예기를 사용한 살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홍콩,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예기에 의한 살인사건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국외에 다수 존재한다.

먼저 Au와 Beh(2015)의 경우, 홍콩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예기에 의한 살인 총 141건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흔의 위치와 종류, 횡수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예기에 의해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 살인의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기에 의한 상처가 더 심할수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가 하체나 팔·다리보다는 얼굴이나 머리, 목일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예기로 행한 살인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대부분 남편이나 애인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다. 반면,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지인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 의한 범행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Au & Beh, 2015).

Karlsson(1998)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982년부터 1993년 사이에 발생한 174건의 예기에 의한 살인 사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피해자가 신체에 여러 번 예기로 인한 상흔을 입은 경우는 가해자의 감정적 과잉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군데

이상의 상흔을 입은 경우(overkill)는 가해자가 가족이나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사이이거나, 가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단일 횃수의 상흔을 입은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순 지인 사이이거나, 피해자가 주취 상태였을 경우, 가해자의 범행의도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경우와 관련이 있었다(Karlsson, 1998). 특히, Karlsson(1998)은 이 연구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횃수와 심각성이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가해자의 특성을 추론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시사점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Rodge, Hougen와 Poulsen(2000)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각각의 수도인 오슬로와 코펜하겐에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간 발생했던 총 141건의 예기에 의한 살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즉,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술자리를 함께하는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의해 살해당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인 피해자는 배우자에 의해 살해당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신체의 단일 부위에만 상흔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여성 피해자는 단일 상흔이 드물고 대부분 서너 곳의 신체 부위에 상흔을 보였다. 더불어, 남성 피해자의 경우 여성 피해자보다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dge et al., 2000).

#### 둔기에 의한 살인 및 예기에 의한 살인 비교

Ambade와 Godbole(2006)은 인도에서 1998-2000년 사이 발생한 둔기에 의한 살인 99건과 예기에 의한 살인 91건을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피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특히 60대 이상인 피해자의 경우 예기보다는 둔기에 의한 살인이 다섯 배 가량 더 많았다.

또한 둔기에 의한 살인 피해자의 상처는 단일 상흔으로 대부분 머리에 나타났고,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사용한 경향을 보였다. 덧붙여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가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경우일 때, 예기보다는 둔기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기에 의한 살인 피해자의 상처는 흉부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머리, 목, 복부, 손발 등 여러 군데에 걸쳐 나타났다. 더불어 예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살인이라는 분명한 범행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하며, 흥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mbade & Godbole, 2006).

#### 교살 범죄의 특성

Häkkinen(2005)은 핀란드에서 1996년-2002년 사이에 줄·끈 등의 도구로 목 졸라 살해한 교살 사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삼분의 일가량이 여성이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알고 있는 지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가해자가 범행 시 알코올이나 마약을 사용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약물 남용과 교살과의 연관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가 63%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가해자의 대부분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äkkinen, 2005).

### 여러 흉기에 따른 살인 범죄 비교

Fischer, Kleemann과 Tröger(1994)은 독일에서 1978년부터 1988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251건의 살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1) 둔기에 의한 살인, 2) 예기에 의한 살인, 3) 목조르기에 의한 살인(끈을 이용한 교살 혹은 맨손을 사용한 액살), 4) 총기에 의한 살인, 5) 기타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외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 피해자는 대부분 단일 상해를 입은 반면, 여성 피해자는 하나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둔기나 예기, 총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는 피해자 성별 분포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목조르기에 의한 살인은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가 훨씬 더 많았다(Fischer et al., 1994).

Henderson, Petel과 Tiplady(2005)은 영국 런던에서 1992년에서 2001년 사이 발생한 살인 총 62건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 노상이나 술집 주변에서 피해를 당했다. 반면,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흉기 유형에 따라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예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 피해자가 주로 흉부에 여러 차례의 외상을 입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둔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머리에 외상이 집중되어 있는 차이를 보였다(Henderson et al., 2005).

이처럼 국외에서는 예기나 둔기, 줄이나 끈 등 흉기 유형에 따라 피해자 특성이나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관계, 살인의 의도나 계획성 등에 차이점을 보고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처럼 흉기의 유형에 따라 범행 특성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인 흉기인 칼 등의 예기에 의한 살인을, 줄이나 끈, 맨손 등을 사용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교·액살 사건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외상 특성, 범행 수법에 대한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살인에 있어 흉기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총서 08-11: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강은영 등, 2008)의 연구수행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자료번호 A1-2008-0048)에서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국내 소재 총 14개소의 교도소 및 1개소의 구치소에서 기록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기록 조사는 재소자의 신분장 및 분류조사표 등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생한 살인 사건 총 302건이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살인 가해자 총 302명 중 남성이 252명(83.4%)으로 대다수였고, 여성은 50명(16.6%)이었다. 가해자의 연령은 최소 15세에서 최고 67세까지 평균 37.61세( $SD = 10.39$ )로 나타났다. 이 중 35세가 15명(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9세가 14명(4.6%), 36세가 13명(4.3%)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 총 302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경우가 204명으로 67.5%를 차지하였고, 전과가 없는 가해자가 98명으로 32.5%로 나타났다. 총 전과 수의 평균은 5.02회( $SD = 4.39$ )로, 1회가 39명(1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회로 30명(9.9%), 3회가 25명(8.3%), 그리고 4회가 24명(7.9%)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전과 중 최초로 저질렀던 범죄명을 살펴보면, 절도가 62명(2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상해가 60명(19.9%), 교통범죄가 44명(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살인 범행 후 검거되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범행 후 24시간 이내에 검거된 경우가 131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 이상이 79건(26.2%), 1일 이후~3일 이내가 44건(14.6%), 일주일 이내 26건(8.6%)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살인 피해자 총 302명 중 남성은 134명(44.4%), 여성이 167명(55.3%)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은 최소 만 0세에서 85세까지 평균 40.31세( $SD = 13.83$ )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4세가 15명(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7세가 14명(4.6%), 42세가 12명(4.0%) 등의 순으로 많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혼인 상태는 결혼(초혼)이 61명(2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혼이 39명(12.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69명(22.8%)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45명(14.9%), 애인 56명(18.5%), 직장동료 29명(9.6%), 친족이 27명(8.9%), 친구나 선후배 25명(8.3%), 지인 38명(12.6%), 범행 몇 시간 전 알게 된 사람 13명(4.3%) 등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장소는 총 302건 중 피해자와 가

해자의 공동주거지인 경우가 64건(21.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59건(19.5%), 유흥업소 및 요식업소가 42건(13.9%), 가해자의 주거지 22건(7.3%)의 순으로 많았다.

## 연구 절차

흉기 유형에 따른 살인 범행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살인 범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기에 의한 살인 범죄를 줄이나 끈, 맨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교·액살 살인 범죄와 비교하였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살인 범행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피해자 외상 부위 및 유형, 범행 수법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총 302건의 살인 사건 가운데 예기에 의한 살인은 196건(64.9%), 교·액살 살인은 106건(35.1%)이었다. 이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등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살인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유형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상의 차이를 먼저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1 참조).

우선 가해자 및 피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살인 범행에 있어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들과 줄이나 끈, 맨손으로

표 1. 가·피해자 연령 및 가해자 전과 횟수

항목	유형	M	SD	t
가해자 연령	교·액살	36.86	9.966	-.928
	예기사용	38.02	10.609	
피해자 연령	교·액살	37.93	16.585	-1.991*
	예기사용	41.58	11.948	
가해자 총 전과 수	교·액살	4.18	3.412	-2.248*
	예기사용	5.48	4.804	
절도전과 횟수	교·액살	2.43	1.564	.160
	예기사용	2.37	2.018	
폭행/상해 전과횟수	교·액살	2.49	1.805	-2.902**
	예기사용	3.82	3.372	

\* p < .05, \*\* p < .01, \*\*\* p < .001

피해자의 목을 조른 가해자들 모두 범행 당시 평균 약 37-38세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연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예기로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과 횟수 및 유형에 있어 두 집단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기를 사용한 경우, 교·액살 가해자들에 비해 총 전과 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보다 자세히 전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절도 전과 횟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폭행 및 상해 전과 횟수가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들의 경우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해자의 특성을 전과, 범행 후 도주 및 검거 등으로 나누어 교차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표 2 참조). 먼저 전과 유무 및 유형과 관련하여, 교·액살 가해자들은 최초로 저지른 범죄가 절도인 경우가 삼분의 일 이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들은 최초 범죄가 폭행이나 상해인 경우가 삼분의 일 이상으로, 교·액살 가해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범죄경력 중 절도 및 폭행/상해 전과 유무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교·액살 가해자는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던 반면,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는 폭행/상해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약 절반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범행 후 가해자의 행동을 보면, 교·액살 가해자는 대부분 범행 후 도주하는 반면,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는 범행 후 현장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와 더불어, 범행 후 검거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 보면,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는 24시간 이내 검거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교·액살 가해자들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반면, 교·액살 가해자는 범행 후 일주일 이상

에 검거되는 경우가 약 절반을 차지하여,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들보다 역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2 참조). 먼저 교·액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예기로 인해 살해된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혼인 상태를 보면, 교·액살 피해자가 미혼인 경우가 예기 살인 피해자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더불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한 경우가 교·액살 피해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표 2.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항목	교·액살	예기사용	$\chi^2$	$\phi$
가해자 최초범죄 - 절도	29 (37.7%)	33 (23.4%)	4.975*	-.151
가해자 최초범죄 - 폭행/상해	10 (13.0%)	50 (35.5%)	12.610***	.241
가해자 절도 전과 있음	42 (40.0%)	49 (25.3%)	6.993**	.153
가해자 폭행/ 상해 전과 있음	37 (35.2%)	93 (47.9%)	4.471*	.122
가해자 범행 후 도주	75 (75.0%)	108 (59.0%)	7.230**	-.160
가해자 범행 후 현장에 머물	5 (5.0%)	46 (25.1%)	17.748***	.250
가해자 24시간 이내 검거	23 (24.5%)	108 (58.1%)	28.309***	.318
가해자 일주일 이후 검거	41 (43.6%)	38 (20.4%)	16.575***	-.243
피해자 - 여성	79 (74.5%)	88 (45.1%)	24.032***	-.283
피해자 - 미혼	21 (37.5%)	18 (19.6%)	5.770*	-.197
피해 당시 저항 못함	62 (59.0%)	91 (46.7%)	4.186*	-.118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피해자 외상 부위와 유형

항목	교·액살	예기사용	$\chi^2$	$\phi$
외상 부위	머리 (12.3%)	19 (9.7%)	.480	.040
	얼굴 (16.0%)	27 (13.8%)	.283	.031
	몸통 (21.9%)	155 (79.1%)	92.497***	.554
	팔, 다리 (9.4%)	45 (23.0%)	8.449**	.167
상처 유형	1개 상해 (45.3%)	46 (23.6%)	15.047***	-.224
	한 곳 여러 개 상해 (4.8%)	55 (28.1%)	23.256***	.278
	여러 곳 여러 개 상해 (23.8%)	81 (41.3%)	9.196**	.175

\* p < .05, \*\* p < .01, \*\*\* p < .001

### 피해자 외상 부위 및 유형

이번에는 피해자가 외상을 입은 신체부위와 상처 유형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표 3 참조).<sup>1)</sup>

우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외상을 입은 신체 부위를 살펴보면, 예기로 살해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몸통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기로 살해당한 피해자는 교·액살 피해자에 비해서 팔, 다리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입은 상처의 경

우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은 상처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액살 피해자들의 경우 신체의 한 부분에 한 개의 상처만 남아있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반면, 예기로 살해당한 피해자는 신체 부위 한 곳에 여러 개의 상해 흔적이 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신체 부위 여러 곳에 여러 개의 상해를 입은 경우도 예기로 살해당한 피해자에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 범행 수법

다음으로 살인 범죄에 있어 흉기 종류에 따른 범행 수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이 때, 신체 부위 중 목의 경우는 한 집단에 대한 정의에 포함되므로("줄, 끈, 맨손 등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피해자"), 비교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표 4. 범행 수법

항목	교·액살	예기사용	$\chi^2$	$\phi$
준비해온 흉기사용	27 (25.5%)	105 (53.6%)	22.078***	.270
피해자 결박	16 (15.1%)	11 (5.6%)	7.598***	-.159
피해자 재갈물림	13 (12.3%)	5 (2.6%)	11.580**	.196
귀중품 절도 혹은 절도 시도	36 (34.0%)	40 (20.4%)	6.711***	-.149
강간 행위	20 (19.0%)	6 (3.2%)	20.947***	-.267
범행 후 시신 이동시켜 유기	36 (34.0%)	8 (4.1%)	49.349***	-.404
범행 후 시신 전신 덮음	9 (8.5%)	6 (3.1%)	4.296*	-.119
범행 후 은폐 조작 시도	23 (21.7%)	21 (10.7%)	6.668**	-.149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참조). 우선, 사전에 준비해온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예기를 사용한 살인에서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즉, 이는 예기를 사용한 살인에서 범행의 계획성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범행 도중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결박하거나 재갈을 사용하는 수법은 교·액살 범행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범행 중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도하거나 절도하려고 시도한 경우는 예기를 사용한 살인보다 교·액살 범행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범행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한 교·액살 범행에서 약 다섯 배 이상 더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행 후 가해자가 시신을 처리한 방식 및 범행 현장에 가한 은폐·조작 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시신을 범행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유기하는 수법은 교·액살 사건 가운데 약 삼분의 일에서 나타나는 등, 예기를 사용한 살인보다 약 여덟 배 이상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피해자의 전신을 이불 등을 사용해 덮은 경우 또한 예기를 사용한 살인보다는 교·액살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와 더불어, 범행 후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경우 역시 교·액살 사건에서 두 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번에는 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형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즉, 살인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유형(예기: 1, 줄·끈·맨손 등: 0)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독립 변인의 경우 위 분석에서 effect size가 moderate 수준인 .20 이상(Rea & Parker, 1992)인 변인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가해자 특성과 관련하여 살인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유형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포함된 독립 변인은 '가해자 총전과 수', '가해자 최초범죄 - 폭행/상해', '가해자 범행 후 현장에 머물', '가해자 24시간 이내 검거' 등 4개였다.<sup>2)</sup> 그 결과,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해당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hi^2 = 27.956, p = .000$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의 결정 계수( $R^2$ )는 19.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종속변인의 예측 정확도 역시 분류 정확도가 70.2%로 나타났다.

즉, 예기를 사용한 살인범들이 피해자를 교·액살한 살인범들에 비해 총 전과 수가 유의미하게 더 많으며, 최초로 저지른 범죄가 폭행 혹은 상해일 가능성이 약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예기를 사용한 살인범들이 범행 후 24시간 이내 검거될 가능성이 교·액살한 살인범들에 비해 각 약 세 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 '폭행/상해 전과횟수'는 '총 전과 횟수'와 상관성이 높아( $r=.611$ ) 제외하였으며, '가해자 일주일 이후 검거'는 '가해자 24시간 이내 검거'와 상호배타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 특성 중 살인 흉기 유형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피해자 연령' 및 '피해자 - 여성'을 독립 변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6 참조), 예기로 살해된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교·액살 피해자들보다 연령이 더 높았으며, 여성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 역시 유의하였으며( $\chi^2 = 28.230, p = .000$ ), 모형의 설명력은 12.4%, 종속 변인의 분류 정확도는 68.7%이었다.

마지막으로, 외상 특성 및 범행 수법과 관련하여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이번 모형에는 독립 변인으로 '상처 부위 - 몸통', '한 곳에 여러 개 상해', '준비해온 흉기 사용', '강간 행위', '범행 후 시신 이동시켜 유기' 등의 5개를 포함하였다.<sup>3)</sup> 그 결과,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해당 모형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171.256, p = .000$ ), Nagelkerke의 결정 계수( $R^2$ )는 61.2%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종속 변인의 분류 정확도가 85.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예기를 사용한 살인의 경우 교·액살 사건에 비해 피해자가 몸통에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약 15배 정도 더 많으며, 신체 한 부분에 여러 개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약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기를 사용한 살인의 경우 흉기를 준비해 와서 사용할 가능성이 교·액살 사건보다 세 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살인 범행 후 시신을 범행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 유기하는 범행 수법은 피해자를 교살이나 액살한 살인 사건의 경우가 훨씬 더 많

3) '1개 상해'는 '한 곳 여러 개 상해'와 상호배타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5.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 특성 요인

독립변인	B	S.E	Wald	p	Exp(B)
총 전과 수	.101	.050	4.127	.042	1.106
최초범죄 -폭행/상해	.841	.411	4.181	.041	2.319
범행 후 현장에 머물	.797	.620	1.650	.199	2.218
24시간 이내 검거	1.005	.390	6.623	.010	2.731
Constant	-.442	.284	2.423	.120	.643

$R^2=.190$ (Nagelkerke), Hosmer-Lemeshow 검정 유의확률=.963

표 6.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특성 요인

독립변인	B	S.E	Wald	p	Exp(B)
피해자 연령	.018	.009	3.861	.049	1.018
피해자-여성	-1.244	.267	21.690	.000	.288
Constant	.648	.423	2.349	.125	1.911

$R^2=.124$ (Nagelkerke), Hosmer-Lemeshow 검정 유의확률=.120

표 7.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범행 특성 요인

독립변인	B	S.E	Wald	p	Exp(B)
상처 부위 - 몸통	2.683	.378	50.258	.000	14.633
한 곳 여러 개 상해	2.308	.644	12.855	.000	10.052
준비해온 흉기 사용	1.079	.380	8.075	.004	2.942
강간 행위	-2.365	.610	15.032	.000	.094
범행 후 시신 이동 유기	-2.795	.573	23.821	.000	.061
Constant	-.825	.271	9.267	.002	.438

$R^2=.612$ (Nagelkerke), Hosmer-Lemeshow 검정 유의확률=.839

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총 302건의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사용된 흉기 종류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피해자 외상 부위 및 유형, 범행수법 등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다양한 흉기 유형 가운데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기를 사용한 살인 사건을 줄이나 끈, 맨손

등을 사용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교·액살 사건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는 차례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액살 피해자의 취약성**

우선 본 연구 결과, 예기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보다 교·액살 피해자들의 경우 여성이 대다수(약 75%)를 차지하여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공식통계에서 살인 피해자는 남성(57.7%)이 여성(42.3%)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결과에 비추어 봐도 상당히 편중된 결과라 할 수 있다(대검찰청, 2016). 이처럼 목조르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결과는 관련 국외의 연구결과와도 상당히 일치한다(Fischer et al., 1994).

뿐만 아니라 예기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보다 교·액살 피해자들의 경우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고, 미혼인 경우가 두 배 정도 더 많았으며, 범죄 피해 당시 저항을 하지 못한 경우 또한 상대적으로 더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예기에 의한 살인에 비해 교·액살 사건의 경우 보다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흉기 유형과 가해자의 범행 전력**

살인 가해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는 총 전과횟수가 더 많았다. 그 중에서도 폭행/상해 전과횟수가 유의미하게 더 많았으며, 최초 범위가 폭행이나 상해인 경우 또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에 반해

교·액살 가해자는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최초 범위가 절도인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처럼 살인에서 사용된 흉기에 따라 가해자의 전과 횟수나 유형에서의 차이를 보고한 경우는 국외에서도 그 선례를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sup>4)</sup> 이러한 결과는 살인 사건에서 사용한 흉기의 유형에 따라 가해자의 범행 전력이 특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예기를 사용한 살인범의 경우 폭력적인 대인 범죄를 더 오래, 더 많이 저질러왔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교·액살 살인범의 경우 절도 등의 대물 범죄에 보다 전문화되었을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더 많은 표본 수로 구성된 국내 다른 살인 범죄자 데이터를 통해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피해자의 외상 횟수 및 형태가 갖는 시사점**

피해자의 외상부위 및 유형과 관련하여, 우선 교·액살의 경우 목조르기로 인한 단일 상흔이 비교적 빈번하였다. 반면 예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는 몸통이나 팔, 다리에 걸쳐 상흔부위가 나타났고, 신체 한 부분에 여러 번의 상흔을 보이거나 신체 여러 곳에 다수의 분산된 상흔을 보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예기를 사용한 살인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외상 패턴에 대한 결과는 국외의 살인 범죄 관련 연구 결과들과도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예기에 의한 살인은 가해자

4) 단, 앞서 살펴본 바와 핀란드에서 교살 사건의 특성을 조사한 Häkkinen(2005)의 경우, 가해자의 63%가 전과가 있었고, 가해자의 대부분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가 여러 번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흉부에 외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외에도 머리카 손발 등 신체 여러 부분에 걸쳐 상처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Ambade & Godbole, 2006; Henderson et al., 2005).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횟수가 많고 그 형태가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Karlsson(1998)은 이것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진 분노나 원한 등의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Karlsson(1998)은 특히 예기에 의해 10여 군데 이상 피해자가 외상을 입은 경우,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감정적 과잉으로 저지른 overkill 범행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흥기에 의한 피해자의 외상 형태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실용적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예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 사전에 준비해 온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과반수로, 교·액살 사건보다 두 배 이상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인에 쓰인 흉기 유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흔 형태에 따라 살인의 계획성 및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교·액살 사건의 범죄 피해 내용 및 사건은 폐 가능성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가해자는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에 비해 범행 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행동이 비교적 더 빈번하였다. 더

불어, 범행 중 절도나 강간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더 많았다. 이는 특히 교·액살 사건의 경우 살인 뿐만 아니라 절도, 강간 등의 경합 범죄가 보다 빈번하여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보다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교·액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액살 사건의 경우 예기에 의한 살인에 비해 범행 후 시신 유기, 범행 은폐 및 조작 시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범행 발생 일주일 이후 검거되는 경우(약 44%)가 훨씬 더 많았다. 이는 특히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약 70%가 1일 이내에 검거된다는 국내 공식 통계 결과와 비교해 볼 때(대검찰청, 2016) 상당히 우려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국내에서 1998-2008년 사이에 발생한 총 302건의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흉기 유형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범행 수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가 근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살인 사건 발생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의 흉기 유형에 따른 특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살인 피해자 총 302명

중 남성(44.4%)보다 여성(55.3%)이 더 많았다. 그러나 국내 살인 범죄의 공식 통계를 보면(대검찰청, 2016), 살인 피해자는 남성(57.7%)이 여성(42.3%)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 포함된 총 302건의 살인 사건 가운데 예기에 의한 살인은 196건(64.9%), 교·액살 사건은 106건(35.1%)이었다. 이를 국내 살인 범죄의 공식 통계와 비교해 보면(대검찰청, 2016), 범행 도구 중 칼은 약 66%의 범행에서 사용되었으며, 줄이나 끈을 사용한 경우는 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볼 때 예기에 의한 살인의 비율은 국내 범죄 통계에 맞게 본 연구에 비교적 동등한 비율로 반영되어 있으나, 줄이나 끈을 사용한 경우는 실제로는 약 4%에 불과하고, 맨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우는 따로 공식 통계에서 집계하지 않아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액살 사건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본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에 한계점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내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살인범죄의 범행도구로는 예기 다음으로 몽둥이 등과 같은 둔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기에 의한 살인과 줄이나 끈, 맨손을 사용한 살인 두 유형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국내 실제 통계에 맞게 후속 연구로는 둔기에 의한 살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다른 유형의 흉기에 의한 살인 사건들과의 차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살인의 범위를 교살과 액살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살과 액살에 있어서도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범행 수법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살인 사건 중에서도 가해자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국외 연구에서 흉기 종류에 따른 차이점과 관련된 변인인 가해자의 정신질환과 알코올 및 마약 사용과의 관련성 등이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Häkkanen, 2005; Karlsson, 1998; Rodge et al., 2000). 따라서, 추후 더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의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 마약 사용 등과 관련된 변인을 연구하여 국외 관련 연구결과들이 국내에서도 검증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살인 범죄에 사용된 흉기에 주목하여 흉기의 유형에 따른 살인 범죄의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은영, 박형민 (200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고선영 (2011). 살인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현장행동특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135-158.
- 김경옥, 이수정 (2005).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31-149.
- 대검찰청 (2016). **2016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백창현 (2007). 여성살인범의 통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3(1), 85-116.
- 서종한 (2010). 정신분열증 가해자의 살인 전 스트레스요인과 살해수법.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1(2), 109-123.
- 이봉환 (2009). 한국 연쇄살인범죄의 테마와 특성 분석. **형사정책**, 21(2), 217-244.
- 이윤 (2016). 범죄수사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베이저안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7(3), 157-180.
- 이재영, 유영재, 박보라 (2014). 미디어의 살인 사건 보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0(2), 215-240.
- 이현정, 박권수, 최창섭 (1999). 정신분열병 환자의 살인에 관한 연구. **대한법의학회지**, 23(2), 37-41.
- Ambade, V. N., & Godbole, H. V. (2006). Comparison of wound patterns in homicide by sharp and blunt force.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56, 166-170.
- Au, K. I., & Beh, S. L. (2011). Injury patterns of sharp instrument homicides in Hong Kong.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204, 201-204.
- Fischer, J., Kleemann, W. J., & Tröger, H. D. (1994). Types of trauma in cases of homicide.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68, 161-167.
- Häkkinen, H. (2005). Homicide by ligature strangulation in Finland: Offence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52, 61-64.
- Henderson, J. P., Morgan, S. E., Patel, F., & Tiplady, M. E. (2005). Patterns of non-firearm homicide. *Journal of Clinical Forensic Medicine*, 12, 128-132.
- Karlsson, T. (1998) Sharp force homicides in the stockholm area, 1983-1992.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94, 129-139.
- Rea, L. M. & Parker, R. A. (1997). *Designing and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Rogde, S., Hougen, H. P., & Poulsen, K. (2000). Homicide by sharp force in two Scandinavian capital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09, 135-145.
- 1 차원고접수 : 2017. 06. 02.  
심사통과접수 : 2017. 06. 28.  
최종원고접수 : 2017. 07. 05.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homicides by sharp force and strangulation

Hyeonseo Son

Jisun Par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and the victim, location of trauma, and the methods of crime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weapon used for the homicide. Among various types of weapon used in homicide, the present study compared homicides by sharp force,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used homicide weapon in South Korea, with homicides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Based on a total of 302 homicide cases occurred from 1998 to 2008, we compared homicides by sharp force with homicides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by using Chi-square analyses and T-test, and additionall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weapon type. As a result, the offender who used sharp force had a bigger number of criminal records than offenders who committed homicide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especially the criminal record of violence. Compared to victims of homicide by sharp force, victims of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were significantly younger, and were more likely to be female and single. Most of the victims by sharp force sustained injury on the chest, whereas victims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were more likely to sustain injury on the head and face. In terms of methods of crime, offenders of homicides by ligature/manual strangulation were more likely to bind, gag, and rape the victim, steal from the victim, and stage the scene after the offense than those of homicides by sharp force.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made.

*Key words* : homicide, weapon type, sharp force, ligature strangulation, manual strangulation, body disposal